

	<b>베트남(하노이) 해외사무소</b> <b>해외동향보고서</b>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정 걸 기 소 장
		일 시	2024. 10.

## CEPA Insight

- 베트남, 태풍 여파로 제조업 뒷걸음질..9월 PMI 47.3 전월비 5.1 ↓
- 베트남, 원전 개발 본격 '재시동'...탄소중립·에너지안보 보장
- 베트남, 제조업 회복세..8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기비 9.5% ↑

### ■ 베트남, 태풍 여파로 제조업 뒷걸음질..9월 PMI 47.3 전월비 5.1 ↓

- 지난달 베트남의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가 40대로 추락하며 6개월만에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졌다.
- S&P글로벌(S&P Global)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베트남의 제조업 PMI는 47.3으로 전월대비 5.1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지난 8월까지 PMI는 5개월 연속 50을 웃돌며 경기확장 국면을 이어간 바 있다.
- PMI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각 기업 구매담당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업계동향 지표로 50미만은 경기위축, 50이상은 경기확장을 의미한다.
- 주요 조사항목은 ▲신규 생산량 ▲원자재 재고 ▲완제품 재고 ▲신규 주문 ▲구매량 등 5개부문 증감률이다.
- 지난 9월의 경우 생산량과 신규 주문, 구매 및 재고 등 주요 지표가 모두 감소했다.
- 신규 주문 감소분은 소폭에 그쳤으나, 기업들은 6개월만에 구매활동을 줄였고, 생산라인이 중단됨에 따라 작업잔고는 2년 6개월내 최고치로 증가했다.
-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태풍 야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81조 5000억동(약 32억9230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액은 앞서 기획

투자부가 내놓은 추산치와 비교해 2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44명(사망 318명)에 달했으며, 40만호에 가까운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논 2844km<sup>2</sup>과 농지 611km<sup>2</sup>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가금류 560만수가 폐사하는 등 특히 농축산부문의 피해가 컸다.
- 그러나 S&P는 태풍 영향이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PMI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들은 내년 생산량 증가를 전망했으며, 빠른 수요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기업심리는 3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 호치민시 통계국이 관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같은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당시 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62% 이상이 '향후 생산 및 사업상황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25%는 '안정적인 사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66>

## ■ 베트남, 원전 개발 본격 '재시동'...탄소중립·에너지안보 보장

- 베트남이 원전 도입 계획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함께 에너지 안보 보장에 크게 기여 할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베트남정부 지도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연구·개발이 기존 전력원 보완 및 환경오염 감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본격적인 원자력 개발에 앞서 구체적인 해외사례 연구 및 조사에 나설 것을 공상부에 지시했다.
- 이에 따라 공상부는 세계 각국의 원전 개발 현황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내용을 정부사무국 및 정치국 등에 보고하고 원자력 발전과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 현재 베트남은 연간 발전량을 매년 12~15% 늘려 에너지 안보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원의 경우 석탄에서 가스로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

- 그러나 2050년 목표, 2021~2030년 제8차 국가전력계획(PDP8)에는 원자력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공상부는 최근 PDP8 수정안 초안을 통해 소형모듈원전(SMR) 도입계획을 밝힌 바 있다.
- SMR은 출력 300MW 미만 모듈방식의 원자로를 말한다. SMR은 기존 원자로에 비해 크기와 출력을 대폭 낮춰 건설비용과 기간, 운용 안전성 등 기존 원전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 공상부는 "현재 전세계 32개국이 원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9.1%를 원전이 차지했다"며 "원전은 재생에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공상부는 이같은 점을 근거로 베트남에서 부유식 원전을 비롯한 SMR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원자력은 현재 의견수렴이 진행중인 전력법 개정안에도 신에너지 형태로 분류돼있다. 초안에 따르면 국가는 예비전력원과 전력시스템 등 원전 관련 개발에 독점 투자권을 갖는다.
- 초안을 검토한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베트남은 우수한 원전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인데다 이러한 유형의 발전원에 대한 투자가 다시금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가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며 "원자력 발전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력원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31>

## ■ 베트남, 제조업 회복세... 8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기비 9.5% ↑

- 올들어 베트남의 산업생산지수(IIP)가 제조업 회복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11일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지난 8월 IIP는 전월대비 2%,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했다. 이에따라 올들어 8월까지 IIP는 전년동기대비 8.8% 증가율을 기록했다.

- 올해 1~8월 업종별 증가율은 발전·송배전업이 11.6%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가공·제조업 9.7%, 상하수·폐기물업 7.8% 순으로 집계됐다. 광업은 7% 감소했다.
- 부문별로는 고무·플라스틱제품이 30%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화학·화학제품 17.8%, 섬유 13.4%, 전자 및 컴퓨터·광학제품 10%, 상품생산·가공이 7.3% 증가했다.
- 이와함께 철·조강 31%, 식물 16%, 설탕 14%, 석유·가스 13% 등 핵심산업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LPG(-15%), 원유(-7%), 휴대전화(-5.2%), 석탄(-3%) 등 상품은 감소했다.
- 지역별 IIP는 전국 63개 성·시 가운데 2개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전지역이 증가율을 기록했다.
- 지난 8월(11일 기준) 전국 산업단지 근로자수는 전월대비 0.9%,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간기업 근로자는 전월대비 0.6%,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했고, FDI(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은 전월대비 1%, 전년동기대비 5.7% 늘었다. 국영기업은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전년동기대비로는 1.5% 증가했다.
- 이에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투자 지출 장려와 핵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FDI 유치 및 집행 촉진을 위한 노력이 내수 생산용량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앞서 S&P글로벌(S&P Global)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베트남의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는 52.4로 전월대비 2.3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신규 주문 증가에 구매량이 2022년 5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호조를 이어갔으며, 고객 수요와 신규 주문 추가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내년 생산 증가를 전망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기업심리도 크게 개선됐다.

※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79>